

이사가는 날

김세은 글·그림
비룡소/A4/28면/5000원

올해 '황금도깨비상' 대상을 수상한 그림동화집. 새 집으로 이사하는 풍경과 이사하는 일을 커다란 삶의 변화로 받아들이는 한 어린 아이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변두리에 살던 주인공은 가족들이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흥분하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분주하게 이삿짐을 싸고 나르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정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자, 비로소 주인공은 옛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고는 한동안 슬퍼한다. 이 동화는 마침내 이사를 무사히 끝내고 반듯하게 지어진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데서 끝난다.

우물 안 개구리

리원길 엮음
해누리/A5신/336면/5000원

우리 조상들이 생활 속에서 깨달은 지혜와 따끔한 충고, 배꼽을 잡게 만드는 해학이 짙게 밴 속담을 풀이한 책. 100여편의 속담이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실려 있어 속담 이해에 도움을 준다.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맞더라'는 속담은 할 말은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이고, '꾸어온 보릿자루'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무말도 안하고 앉아 있기만 하는 사람을 놀리는 말이다.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빗대어 말할 때도 쓰인다.

어려운 낱말풀이와 속담에 얹힌 우화도 간간히 곁들여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한다.

신나는 화학

전화영 지음
동녘/A5신/272면/4500원

생활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들을 화학지식과 접목시킨 책. 재미있는 생활과학 실험들이 소개된다.

예를 들어, 금붕어 가게에서 파는 염소 제거제 '하이포'와 병뚜껑으로 추운 겨울에도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손난로를 만들 수 있고, 양배추와 나팔꽃·장미 등 짙은 색깔의 꽃을 소금으로 비벼 즙을 짠 후 거기에 알코올을 섞으면 지시약이 된다. 이것을 주위에 있는 액체에 떨어뜨리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알 수 있다. 이 책은 화학이 그저 골치 아프고 귀찮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실험을 할 수 있는 신나는 공부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아서왕을 만난 사나이

마크 트웨인 지음/이자경 옮김
고려원미디어/A5신/214면/3500원

「왕자와 거지」「톰소여의 모험」「허클베리 핀의 모험」등 많은 소설을 쓴 마크 트웨인의 SF소설. 주인공이 현대에서 아득한 과거로 시간이동을 한다는 기발한 착상이 돋보인다.

19세기 미국 북부에 살던 일급 기술자 보스는 직장에서 동료와 싸우다가 기절한다. 얼마 후 눈을 떠보니 그는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이 살고 있는 6세기 영국에 와 있다. 이때부터 보스는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을 만나게 되고, 무시무시한 기마시합과 무술수업을 하게 된다.

13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에서 모험을 펼치게 된 보스의 별난 이야기이다.



원시소년과 평원의 왕

이명행 지음
국민서관/A5신/272면/8500원

소설 「황색새의 발톱」으로 잘 알려진 작가의 첫 장편동화.

미래에 고고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타고 6천년 전의 과거로 돌아가 그곳 원시시대에서 한달간 생활하면서 겪는 이야기이다. 22세기에 살고 있던 주인공 고야는 어느날 한강변 지하 고속전철 건설 공사장에서 발견된 6천년 전 선사시대의 한 원시인 무덤을 발견한다. 고야는 그 원시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타임머신을 타고 6천년 전 신석기시대로 간다. 그곳에서 '또나'라는 총명한 원시소년과 '평원의 왕'을 만나지만 그들 부족은 동족끼리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원시시대의 삶을 되짚어봄으로써 진정한 용기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

도도새와 카바리아나무

손춘익 지음
웅진출판/A5신/206면/4000원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창작동화집. 총 17편의 동화가 실렸다.

표제작 '도도새와 카바리아나무와 스모호 추장'은 4백년 전 남아메리카 브라질의 리우라는 곳에 서식했던 카바리아나무와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며 살던 도도새, 그리고 그 숲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인디오 추장 스모호의 이야기. 어느날 포르투갈 사람들이 숲을 침략해서 아름다운 도도새를 잡아죽이고, 인디오들을 노예로 삼는다. 가까스로 도망친 스모호 추장은 단 한그루 남아 있던 카바리아 나무에다 "이 카바리아 나무마저 말라 죽게 된다면 세상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새긴다. 그외에 외딴 섬의 등대지기과 새끼 양의 사랑을 그린 '외딴 바위섬', '숲속 다람쥐의 옛집' 등이 실렸다.

다시 읽는 이솝 우화

이덕주·공분근 지음
내일을여는책/A5신/264면/5000원

이솝우화들이 안고 있는 비주체성과 특정 부류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지혜를 비판한 책. 더불어 사는 지혜와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하는 주체적 의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운다.

하나의 우화를 소개하고 그 우화에서 배울 점과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줄거리를 바꾸어 토론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까마귀와 여우'의 우화에서 까마귀가 물고 있던 고기를 뺏기 위해 속임수를 쓴 여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여우가 까마귀를 속이지 않고도 고기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다양한 관점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으며 글쓰기 지침과 읽기 자료를 통해 열린 토론을 벌일 수 있다.

새앙쥐 나라의 올림픽

마떨데 아놀렛티 지음/김홍래 옮김
서광사/A5신/90면/4000원

새앙쥐와 매미, 앵무새 등을 등장인물로 내세운 5편의 동화가 실렸다.

'새앙쥐 나라의 올림픽'은 사람들의 올림픽을 본 새앙쥐들이 기름마시기, 숨 모으기, 쥐뿔에서 치즈덩어리 꺼내기 등의 종목들 만들어 경기를 벌이다가 고양이에게 들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다.

이외에 누구나 각자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올리브 숲속의 매미'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다가 끝내 별이 되고 만 '별이 된 오리온', 나쁜 짓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지만 불쌍한 동물들을 구해주고 천국으로 간다는 '요정 바쿠보'가 있다. '앵무새 삐뽀와 눈송이'는 앵무새 눈송이와 삐뽀가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게 된다는 재미있는 동화.

우리글을 빛낸 문학가·외

우리누리 지음/강효숙 외 그림
우진출판/A5신/각 224면 내외/각 4000원

한국의 정서를 다양한 예술세계로 표현한 우리나라 예술가들의 생애를 담은 '한국의 예술가' 시리즈 첫책권. 허균·박지원·한용운·정지용 등 20명의 문인들을 재조명한 책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과 대표작들을 해설하고 있다. 둘째권 「우리 음악을 세계에 빛낸 음악가」는 평생 동요만을 작곡한 윤극영을 비롯해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봉선화'를 작곡해 암울한 일제시대를 대변한 홍난파, 그리고 현재 세계무대에서 활동중인 지휘자 강동석과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등 20명의 음악가들을 다룬다. 셋째권 「연극·영화」를 빛낸 극예술가」는 영화감독, 연출가, 연기자 등 연극과 영화에 눈을 뜬 선구자들과 현재도 활동중인 극예술가들을 조명하고 있다.

어린이 생태학 (1·2)

최형선 글/최달수 그림
현암사/A5신/각 232, 288면/각 4800원

생태계의 기본개념과 속성, 그것을 관통하는 법칙 등을 환경문제와 연결지어 알기 쉽게 설명한 책. 제1권은 서로 먹고 먹히면서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생태계의 속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멸종위기에 있는 생물이나 자연의 한계 등을 논의대상으로 삼았다. 또 이러한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한 재미있는 실험 5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제2권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설명한 것. 저자는 현대의 기술문명이 초래한 환경오염 중에서 대기·토양·물이 오염된 원인과 이 오염이 확산되기 전에 해야 할 일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커다란 공동체의 일부분이므로 모든 자연을 소중히 여길 것을 당부하는 책이다.



물리가 보인다·외

장동호·심재현·신석균 지음
천재교육/A5신/294면/5000원

「물리가 보인다」는 과학을 좀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여러가지 다양한 우화들을 끌어들이는 책. '단위'를 공부하는 장에선 콩 세 가마니에 들어 있는 콩이 모두 몇알인지 알기 위해 되를 사용한다. 콩 한되 속에 들어 있는 수를 세고 나서 세 가마니가 모두 몇 되인지 나오면 거기다가 한되 안에 들었던 콩의 수를 곱한다. 이외에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를 빌어 '속력'을, '바람과 해'의 이야기에선 '열량'을 설명한다. 「열린 세상 바로보기」는 인간과 정치·경제의 관계를 재미있게 서술한 책. 학급회의는 정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우리가 용돈을 쓸 때마다 간접적으로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보름달 도둑

김숙희 지음
대원사/A5신/224면/3500원

귀한 문화재급 골동품과 보물들을 훔치는 도둑들을 목격한 어린이들이 펼치는 모험을 그린 창작동화. 어느날 마을에 서 있던 석탑과 재실에 모셔둔 초상화가 없어진다. 출동한 경찰들은 범인을 잡으려고 수사를 벌이지만 범인들이 모두 세명이며, 문화재 전문 도굴꾼이라는 사실 밖에는 알아내지 못한다. 국민학생인 보현과 인수, 재호, 미영은 도굴꾼들이 마지막으로 손을 댈 보물이라곤 보현사에 있는 고려불상 하나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절을 지키기로 약속한다. 아니나 다를까, 도굴꾼들은 절에 잠입해서 고려불상을 훔치려고 하는데... 문화재를 한발 '돈벌이'로 여기는 사람들을 반성케 한다.

전국 저명 교수 51인이 각 학문의 본질을 분야별로 알기쉽게 소개한 학문의 길잡이!

학문(學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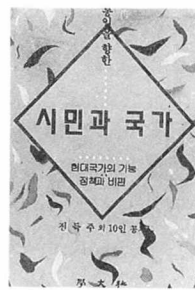
어떻게 할 것인가?

완간

1	이문과과학편 값 4,000원	이삼열(숭실대) 서양철학 양재현(성균관대) 동양철학 윤이홍(서울대) 종교학 김명웅(장로신학대) 신학 박성규(서울대) 국문학 박성규(고려대) 한문학 이정호(서울대) 외국문학 이현복(서울대) 외국문학 이만열(숙명여대) 역사학
2	사회과학편 값 5,000원	오기평(서강대) 정치외교학 김철수(서울대) 법학 안병만(외국어대) 행정학 이형순(고려대) 경제학 곽수일(서울대) 경영학 한주섭(중앙대) 무역학 김영일(이화여대) 사회학 윤진(연세대) 심리학 황성규(서울대) 교육학 유근배(서울대) 지리학 김상근(중앙대) 지역개발학 서정우(연세대) 사회복지학 권기원(성균관대) 신문방송학 문헌정보학
3	자연과학편 값 5,000원	강성근(한양대) 수학 권우현(서울대) 물리학 이철희(숭실대) 화학 정수진(서울대) 생명공학 하완식(서울대) 심리교육학 최정균(서울대) 화공공학 강석호(서울대) 산업공학 김창효(서울대) 원자핵공학 한영열(한양대) 전자공학 박종근(서울대) 전자통신공학 여홍구(한양대) 전기공학 이정규(한양대) 도시공학 박용환(한양대) 토목공학 장수영(포항공대) 건축공학 김정환(한양대) 토목공학 이정규(한양대) 도시공학 박종근(서울대) 전기공학 한영열(한양대) 전자통신공학 전파공학 원자핵공학 전자공학 전자통신공학
4	교과기술편 값 6,000원	송문섭(서울대) 통계학 김제완(서울대) 물리학 이시우(서울대) 천문학 박형석(서울대) 화학 노현모(서울대) 분자생물학 박영인(고려대) 대기화학 박순웅(서울대) 유기화학 김정환(서울대) 지질학 박용안(서울대) 해양학 김동민(시립대) 환경공학 임강원(서울대) 교통학

시민과국가

한국 최초의 "민주시민교육" 도서 !!



-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민주시민교육 도서
 - 현대국가의 기능, 즉 국민을 위한 정책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
 - 내실있는 의식개혁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역설
 - 녹산학술장학재단과 콘라트 아데나워재단의 후원하에 11명의 석학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
- 전득주 외 10인 공저 / 4×6배판 / 380면 / 값 10,000원

사원모집

'최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학문사는 32년을 오로지 학문과 지성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앞장서온 출판사입니다. 당사에서 함께 일할 의욕적이고 소신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 모집부문 및 자격

편집	경력	편집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대학졸업 혹은 졸업예정자로
	신입	편집관련학과 및 학원 이수자	서 한자에 능한 자, PC가능자
영업	경력	학습참고서, 단행본 영업경력 5년 이상인자	

- 구비서류: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성적 증명서(이력서 상단에 응모부문 및 전화번호 명기)
- 제출처: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7-2 사직회관 6층
TEL.(02) 738-5118, FAX 733-8998
- 기타: 본인 직접 내사 면접 요망

